

# 道通眞境에 대한 理解

朴龍哲\*

## 目次

I. 들머리	7) 心으로서의 道
II. 中國의 道	8) 人間 當爲法則으로서의 道
III. 韓國의 道	9) 玄妙한 意味로서의 道
IV. 大巡眞理會의 道	3. 大巡眞理會의 道에서 바라본 先天의 道
1. 道에 대한 多樣한 表現	4. 神道
2. 大巡眞理會의 道가 갖는 意味	V. 道通에 대한 理解
1) 길로서의 道	1. 道通의 主體
2) 循環過程으로서의 道	2. 道通이란
3) 法으로서의 道	3. 道通에 이르는 過程
4) 本體·本源으로서의 道	VI. 眞境에 대한 理解
5) 無로서의 道	VII. 끝머리
6) 理로서의 道	

## I. 들머리

道通眞境에 대한 논문을 쓴다는 것은 매우 많은 난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과거 현재를 통하여 道通眞境을 연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거의 없다는데 있다. 설사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견해를 살펴보면 入山 삼일 후, 天下事를 다 알았다는 鄭北窓(1506-1549)은 “修道의

---

\*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도는 지극히 간단하고 쉬우나 그 서적이 너무 많고 표현 또한 황당하여 世人들이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이 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道通眞境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형이상학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道通眞境이 비록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 하더라도 道通眞境에 대한 서술을 논자는 조심스럽게 하고자 한다.

道通眞境에 대한 서술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먼저 道通眞境을 서술하기 전에 證지를 개괄적으로 해석하면 陰陽合德은 ‘陰陽이 합하여 德을 이룬다’, 神人調化는 ‘神人이 調하여 化를 이룬다’, 解冤相生은 ‘解冤을 하여 相生한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道通眞境은 ‘道에 통하여 眞의 境을 이룬다’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술 방법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만할 것이다. 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려면 먼저 한민족의 전통문화에 담겨있는 도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도는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정하는 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첫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도에 대한 고유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한 후,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에 道通眞境에 대한 해석을 하고자 한다.

1) 李能和 輯述, 李鍾殷 譯, <朝鮮道敎史>, (보성문화사, 1996), p.233의 용호비결(龍虎秘訣)에, 修丹의 道는 簡略하고 쉬운 것이다. 이제 이 도에 관한 책이 하도 많아 서고에 가득할 지경이나 말이 겹그럽고 황홀하여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古今의 학자들이 손뭉 방법을 알지 못하여 長生을 얻으려다 오히려 夭折하는 자가 많았다. 參同契 한편은 실로 丹學의 鼻祖가 되는 것이니 또한 천지의 이치를 참작하고 易象의 卦爻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어서 初學者로서는 추측하지 못할 바가 있다.

## II. 中國의 道<sup>2)</sup>

중국 전통철학에서 道를 살펴보면 『說文解字』는 ‘道는 다니는 길이다(道所行道也)’라고 하였고, 『爾雅·釋宮』은 ‘하나로 통하는 것을 道라고 한다(一達謂之道)’고 하였다. 이와 같이 ‘道는 인간과 사물이 반드시 경유해야 할 길’이라고 字書에서 밝히고 있지만 그 裏面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道는 담고 있다.

『老子(B.C. 580-500)』는 ‘반복(순환)은 道의 운동이다(反者道之動)’고 하였고, 『周易』 繫辭에서는 ‘한번 음하면 한번은 양하는 것이 道다(一陰一陽之謂道)’고 하였고, 韓非(B.C. 280-233) 『解老』에서는 ‘道는 만물의 그러한 바요, 모든 이치가 이른 바이다(道者 萬物之所然也 萬理之所稽也)’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道는 萬物의 法則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노자』 第四章에서는 ‘道는 공허하고 형체가 없으나, 작용하면 또한 무궁무진하다. 얼마나 심원한가. 마치 만물의 主宰같다(道沖而用之或不盈 淵兮似萬物之宗)’고 하여 ‘道는 만물의 本體, 혹은 本源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자』는 ‘道는 일을 낳는다(道生一)’고 하였는데, 이 명제가 변화하여 『呂氏春秋』와 『黃老帛書』에서는 ‘混沌太一위에 가한 虛無之道를 버리고 道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은 원시 혼돈상태 곧, 도는 일이다’고 설명하였다. 이 명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淮南子』에서는 ‘道는 一에서 비롯된다(道始於一)’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일은 무형의 혼돈이다.

王弼(226-249)의 『王弼集校釋·論語釋疑』에서는 ‘道는 아무런 형체가 없어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다(寂然無體 不可爲象)’고 하였다. 즉, 형체도 없고 이름할 수 없는 道를 本으로 보고, 형체가 있고 이름이 있는 것을 末로 여겼다. 오직 궁극적으로 허무해야만 비로소 道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道는 無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程頤(1033-1107)와 朱熹(1130-1200) 같은 道學家는 ‘道와 太極은 다른 이름일 뿐 결코 두 개의 것이 아니라, 道體의 지극함을 太極이라 하고, 太極이

2) 張立文 著, 權珊 譯, <道>, (동문선, 1995), pp.15-18

널리 행해짐을 道'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求道를 자신의 중심 과제로 여겼으므로 '道는 理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본체적 의미에서 道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리로서 道와 理는 똑같이 形而上의 것이므로 器·氣 등의 形而下의 사물과는 대응 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心學家 陸九淵(1139-1193)은 '자신의 마음밖에는 道가 없다(道未有外乎其心)'고 하였고, 이를 발전시킨 楊簡(1141-1225)은 '사람의 마음이 곧 道다(人心卽道)'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明대의 王守仁(1472-1529)은 '모름지기 자기 마음에서 道를 체득해야 한다(須從自己心上體認)'고 주장했다.

張載(1020-1077)는 '형이상을 道라 하고 형이하를 器라 한다(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를 타파하여 '氣의 변화로부터 道라는 이름이 있게 된다(由氣化 有道之名)'고 하면서 '氣의 운동 변화 과정이 道다'고 설명하였다. 程顥(1032-1085)는 정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陰陽의 氣를 도라고 보아 '한번 음하면 한번은 양하는 것이 道다'고 설명하였다. 王廷相(1474-1544)은 유형과 무형의 氣 상태가 또한 道의 나타남과 돌아감(숨음)의 다른 상태라 하여 道와 氣를 同體 범주로 보았고, 戴震(1723-1777)은 陰陽二氣가 道의 실체라고 생각하였다.

중국 근대의 譚詞同(1865-1898), 嚴復(1853-1921), 康有爲(1858-1927) 등은 서방문화의 충격아래 도에 부르주아 휴머니즘의 의미를 부여하여 도의 전통적인 내용을 타파했다. 엄복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은 천리를 거역하고 인도를 해치는 것(侵人自由者 斯爲逆天理 賊人道)이라고 하여 '道는 自由·平等·博愛이다'고 규정하였다.

앞에서 설명된 도의 정의들을 취합하여 정리하면 중국의 道는 다섯 개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道는 천지만물의 본체 혹은 본원으로서 감각기관이 미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을 가리키는 자연현상·사회현상 이면에 있는 그렇게 되는 까닭이다.

둘째, 道는 온 세계의 본질로서 사물의 근본 성질인 사물의 기본 요소를 구성하는 내부적 연계를 가리킨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물의 필연적·보편적·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내부적 연계를 일러 본질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질은 법칙성과 동등한 정도의 범주에 속하지만 법칙성에 비해 더 광범위

하다.

셋째, 道는 사물의 법칙으로 사물 고유의 본질적·필연적·안정적 연계를 가리킨다.

넷째, 道는 운동 변화의 과정으로 기의 변화 과정을 가리킨다. 즉, 자연계의 운동변화 과정과 인류사회의 변화 과정을 가리킨다.

다섯째, 道는 정치 원칙·윤리도덕 규범 즉, 국가를 다스리고 사회활동을 하는 도리를 가리킨다.

### Ⅲ. 韓國의 道

道·佛·儒의 사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중국 전통철학에서의 도를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이 설명된 道는 삼국시대부터 한국에 전파되어, 한민족의 사상적 맥락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A.D. 3세기 이전에 중국에서 수입된 도와 구별되는 도가 옛날부터 한국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는 史料가 있다. 즉, 한국 고대에는 도·불·유 三道の 통합 개념을 넘어선 고유의 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신앙하는 ‘風流道’이다. 풍류도의 본질을 가장 간명하고 직접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은 崔致源(857-?)의 鸞郎碑 序文<sup>3)</sup>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난다.

曰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說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如入則 孝於家 出則 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虛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 莫作 諸善 奉行 竺乾太子之化也(최치원의 난당비 서문에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도라 하며 교의 근원은 선사에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풍류도의 내용은 이전의 종교인 삼교(도·불·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한민족을 끊임없이 교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국가에 충성하니 노나라 사구 벼슬을 한 공자의 가르침이요. 거처함에 자연에 순응하는 일과 행동함에 고요히 침묵하는 가르침은 주나라 주사 벼슬을 한 노자의 유파이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을 받들어 불행함은 추천태자인 석가모니의 교화와 같은 바이다.)

3) 裴一友, <修道에서 得道까지>, (도서출판, 1994), p.174

난남비 서문에서 國有란 표현은 신라국 고유를 의미하며, 玄妙之道란 표현은 그 종교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그것의 본질이 유교의 中正之道도, 불교의 大覺之道도, 도교와 같은 玄虛之道도 아닌 신라 고유의 도로서 '幽玄奧妙'한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풍류도가 고유한 것이므로 그것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신라의 『仙史』라는 책 속에 있다고 한 것이며, 또 풍류도가 현묘지도이기 때문에 그 사상성은 중국의 도·불·유 그 어느 것도 아니지만 본래 3교의 종교적·사상적 성격 원리와 통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묘지도의 본질을 한 마디로 집약하면 '接化群生'인데, 이 접화군생이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동·식물까지도 모두 다 동화·조화할 수 있는 사상을 의미한다면, 풍류도는 3교의 원리를 모두 포함한 도보다도 더 심원한 도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풍류도를 '현묘지도'라고 하였을 것이다.<sup>4)</sup> 이와 같이 한국 고유의 풍류도는 한민족의 심층에 자리 잡고 중국의 도와 융합되어 민족 정신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풍류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우주의 큰 영역에서부터 미세 영역까지 다 적용되는 도라고 설명하는 부분은 중국의 도와 비교 할 때 그 영역이 훨씬 넓고 깊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중국의 전통 철학의 도에서 도를 정의하였듯이 한국의 도에서 도에 대한 독특성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국 고유의 도에 대한 특징을 찾아보면 長生不死를 주장하는 한민족의 仙사상은 옛 동이족의 문화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의 도이다. 이 道는 중국 道教의 教祖가 되는 B.C. 6세기경 老子的 도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한민족 고유의 도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道와 仙의 개념이 동일 개념으로 사용되는 역사성을 都珖淳의 『神仙思想과 道教』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sup>5)</sup> 따라서 도광순의 주장에 의하면 한민

4) 都珖淳 編, <神仙思想과 道教>, (범우사, 1994), p.83

5) 都珖淳 編, <神仙思想과 道教>, (범우사, 1994), p.7에, 단군신화가 신선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실로 보나, 한민족을 주축으로 한 東夷族의 원시종교가 샤머니즘이 이고 샤머니즘이 일전하여 신선사상이 된 사실등을 감안할 때, 신선사상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말은 결코 허황된 주장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대륙에서 신선설이 처음으로 등장된 곳이 한반도에 인접한 燕과 齊의 지역이었다는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니며, 또 신선이 있고 不死藥이 있다는 三神山은 이들 지역에서 멀지 않은 '渤海'에 있다느니 '海中'에 있다느니 하

족의 신선사상은 4세기 이후 중국 전통철학에서 말하는 道와 같은 의미로 사용됨을 말하고 있다. A.D. 4세기 이후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온 도는 한국에서 발전하여 우리만의 정서를 가졌다고 하여도 근본 취지에 해당하는 기본 골격은 같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 철학의 도와 중국 철학에서 말하는 道에 대한 개념은 중국의 도에서 규정한 도의 정의와 大同小異하게 그 範疇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IV. 大巡眞理會의 道

### 1. 道에 대한 多樣한 表現

道에 대한 표현은 종교·국가·시대에 따라 참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도를 神格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도교에서는 ‘元始天尊’, 불교에서는 ‘毘盧遮那佛’, 유교에서는 ‘上帝’, 西敎에서는 ‘여호와’ 등으로 표현하였고, 한국

---

여, 한반도에 삼신산이 있는 듯이 일컬어져온 사실이나, 秦始皇이 求仙을 위해서 파견한 徐市와 韓終 가운데서 적어도 한중은 한반도에 왔다고 추정되는 여러 가지 근거가 발견되고 있는 사실들은 모두가 흥미롭고 당연한 일로 느껴진다. 우리 大韓은 옛날부터 신선의 나라라 자칭해왔다. 산수경계가 지극히 수려·명미한 우리 나라에는 도처에 神山·仙島가 허다하며, 그러한 곳마다 수많은 신선설화가 유전해오고 있으며 수천년 전의 仙跡이 아직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중국의 신선설은 실은 고대 한반도에서 발상한 한국의 신선사상이 전파된 것이고 후세에 그것이 한국에 역수입된 것이라 함이 옳을 것이다. 중국에 신선설이 처음으로 등장된 것은 기원 3세기경이었다. 진시황은 신선사상의 맹신자였고 漢武帝도 또한 그러했다. 기원전 3,4세기경에 등장한 老莊사상과 신선사상은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 無爲自然을 근본으로 하는 노장사상이 長生不死를 위하여 服藥이나 調息·導引 등의 인위적인 방법을 택할 리 만무하며, 더욱이 그 萬物齊同의 사상이 死를 싫어하고 生을 고집하여 불노장생을 희구함은 언어도단이라 하겠다. 그러나 前漢시대에는 정치사상이었던 黃老사상은 後漢시대(2세기 전반)에 와서는, 신선사상으로 변하는 동시에 노자를 신선시하는 단서를 마련하더니 後漢末(2세기 말)에 창설된, 도교의 원시적인 교단인 五斗米道와 太平道에 이르러서는 황노사상에다 신선사상을 흡수함으로써 노자를 신선시하게 되었다. 「노자」에는 “無心하므로 長生한다”, “長生久視”, “大氣를 호흡한다”는 등 方士들이 주창한 장생술과 관련된 말이 보이므로 노자를 신선에 연결짓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4세기 전반에 와서 東晉의 葛洪(3세기-4세기)은 그 당시까지 의문시되었던 신선설에 확고한 이론적 원리를 제공해주게 됨으로써 단순한 신선사상은 ‘신선도’로서 확립되었고, 노자는 신선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에서는 ‘하느님’, 중국에서는 ‘上帝’, 인도에서는 ‘브라흐마’ 고대의 희랍에서는 ‘제우스’ 등으로 표현하였다. 道를 法理로 표현한 것을 보면 『역경』에서는 ‘无極·太極·陰陽’ 등으로 표현하였고, 宋代의 道學家들은 ‘理·氣’로 표현하였고, 현대 과학자는 ‘宇宙自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 지역의 문화와 종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 도는 구체화나 형상화시킬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대순지침』에서 道에 대한 표현을 살펴보면 道는 ‘宇宙大元の 진리’·‘영원한 진리’·‘우주 만상의 始源·生成 변화의 법칙’·‘음양·이치·경위·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도에 대한 설명을 道主께서는 道를 ‘진리·태극·우주의 자연법칙·인간의 당위법칙’ 등으로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종합적이며 통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도란 무극의 정(定)과 태극의 동(動)으로 양의(兩儀)가 생(生)하고 양의에서 사상(四象)이 생하며 사상에서 팔괘(八卦)가 생하는 우주 생성발전의 본체이니라. 그 생(生)이라 함은 다른 물상(物象)이나 사상(事象)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무극이 곧 태극이며 태극이 곧 음양이며 사상이며 오행이며 팔괘니 이것이 태극의 진리니라. 이 진리는 천지인 삼계 어디에나 편재(遍在)하고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항존(恒存)하는 근본 원리니 우주간 모든 사물과 기동이 이 진리에서 이탈(離脫)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를 이(理)로 보면 천리 지리 인리가 되며 법(法)으로 보면 천법 지법 인법이 되고 도(道)로 보면 천도 지도 인도가 되며 이는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이며 보화적(普化的) 진리니라. 이 진리를 체득하기 위하여 동서고금의 무수한 성현(聖哲)들이 노심(勞心)하였으나 유한(有限)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므로 결국 상제께서 친히 강세하시게 되었느니라.<sup>6)</sup>

## 2. 大巡眞理會의 道가 갖는 意味

### 1) 길로서의 道

상제께서 “동쪽의 길을 훼손한 자는 동쪽의 길로 가지 못하고 서쪽의 길을 훼손한 자는 서쪽의 길로 가지 못한다(훼손도자(毀東道者)는 무동거지로(無東去之路)하고 훼손도자(毀西道者)는 무서거지로(無西去之路)하니라)”고

6) 太極道 編纂委員會, <眞經>, (太極道 出版部, 1989), p.589



하신 말씀에서 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의미하기도 하고 人事에 관계되어 지는 여러 통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도의 의미는 字書 『설문해자』·『이아·석궁』가 밝히는 도와 그 脈絡을 같이 하고 있는 바가 있다. 여기서 길로서의 도는 자서가 밝히는 도보다 넓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循環過程으로서의 道

상제께서 “길흉화복의 도가 있다. 만사는 음에서 일어나고 양으로 펼쳐지니, 먼저 어두운 음을 살피고 밝은 양을 보아야 한다. 매사 먼저 시발처를 보아야 하며, 음에서 일어난 일은 양으로 밝아지고 양에서 일어난 일은 음으로 숨게 된다. 모름지기 먼저 음양을 살펴야 된다. 음양은 수화일 뿐이다 (有吉凶禍福之道 萬事起於陰以布陽 先察陰晦以觀陽明 每事先觀始發處 陰起事而陽明 陽起事而陰匿 要須先察陰陽 陰陽則水火而已)”<sup>8)</sup>고 말씀하신 도는 『노자』의 ‘반복(순환)은 도의 운동이다’는 말과 『주역』 계사의 ‘한번 음하면 한번은 양하는 것을 도다’고 하는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지만 상제의 설명은 매우 분명하며 구체적이다.

## 3) 法으로서의 道

상제께서 “일월은 사사로움이 없이 만물을 다스리고 강과 산에 도가 있어 백행을 받든다(일월무사 치만물 강산 유도 수백행, 日月無私治萬物 江山有道受百行)”<sup>9)</sup>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법의 도, 상제께서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sup>10)</sup>에서 상생의 법으로서의 도,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도(道)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합(合)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sup>11)</sup>

7) 『전경』 교법 2장 30절

8) 『전경』 제생 43절

9) 『전경』 교운 1장 30절

10) 『전경』 예시 6절

에서 도법으로서의 도,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 닿는 대로 새 기쁨이 열리리라”<sup>12)</sup>, “나는 생·장·염·장(生長斂藏)의 사의(四義)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화(無爲而化)니라”<sup>13)</sup>에서 무위이화 법으로서의 도, 도주께서 1956년 공포하신 태극도통감의 취지서, “우주가 우주인 것은 근원에 본연의 법칙이 있어 그 신비의 묘가 태극에 있다(宇宙之爲宇宙 元有本然法則而其神秘之妙 在乎太極)”에서 본연의 법칙으로서의 도, “원형이정은 천지의 도다(元亨利貞天地之道)<sup>14)</sup>”와 “크도다! 성인의 도덕이여 원형이정의 대경대법이로다(大哉聖人之道德元亨利貞大經大法)<sup>15)</sup>”에서 원형이정의 법으로서의 도, 도전께서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sup>16)</sup>에 법으로서의 도 등은 법칙으로서의 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한비 『해노』에서 ‘도는 만물의 그러한 바요, 모든 이치가 이른 바이다’라고 설명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제께서 설명하는 원형이정·상생·생장염장 등의 법칙으로서의 도는 그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백한 면을 보이고 있다.

#### 4) 本體·本源으로서의 道

도주께서 “도의 본체인 무극 곧 태극을 과학자는 우주자연이라고 하고 아국(我國)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서교에서는 여호와라 하고 불가에서는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이라 하나 그 명호야 무엇이든 우주생성발전의 본체는 무극 곧 태극이니라”<sup>17)</sup>에서 본체의 도, 都典께서 “우주 대원(宇宙大元)의 진리가 도이며”<sup>18)</sup>에서 대원의 도, “도는 우주 만상의 시원(始源)이며”<sup>19)</sup>에서

11) 「전경」 예시 13절

12) 「전경」 예시 73절

13) 「전경」 교법 3장 27절

14) 「전경」 교운 2장 42절 運合呪

15) 「전경」 교운 2장 33절 覺道文

16) 「대순지침」 p.18

17) 太極道 編纂委員會, <眞經>, (太極道 出版部, 1989), p.590

18) 「대순지침」 p.23

19) 「대순지침」 p.44

시원의 도는 노자의 “도는 공허하고 형체가 없으나, 작용하면 또한 무궁무진하다. 얼마나 심원한가. 마치 만물의 주재 같다”고 하여 ‘도는 만물의 본체, 혹은 본원이다’고 설명하는 것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

### 5) 無로서의 道

상제께서 “천지의 허무를 받아 선으로 포태한다(受天地之虛無 仙之胞胎)<sup>20)</sup>”에서 허무의 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선이 허무의 도에 본질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왕필의 ‘도는 아무런 형체가 없어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다’고 하여 ‘道는 無’라고 설명하는 바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6) 理로서의 道

도주께서 1925년 포유(布諭)하신 무극대도의 취지서, “무릇 도는 하늘이 명한 것인 바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하늘에 무극대도가 있어서 무극의 이치로 인간을 화생시킨다. 무극의 이치로 인간이 생하니 고로 이 도와 이치는 인간이 모두 소유한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인간이 적으니 어찌할까. 대개 도는 곧 이치이며 이치는 곧 무극이며 무극은 곧 하늘이다(夫 道也者 天所命而 人以行之者也 天有无極大道 以无極之理 化生人矣 人生於此无極之理 故 此道與理 人皆所有者也 然而 人鮮能行此者 何也 蓋 道卽理也 理卽无極也 无極卽天也)”에서 ‘대개 도는 이이다(道卽理)’로 표현되어 있다. 도전께서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sup>21)</sup>에서 도를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정이·주희 같은 도학가가 주장하는 ‘도와 태극은 다른 이름일 뿐 결코 두 개의 것이 아니라, 道體의 지극함을 태극이라 하고, 태극이 널리 행해짐을 도’라고 설명하며, 그들은 ‘道는 理다’고 설명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여기서 주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천의 개념인 형이상학적인 一片의 개념만 부각하여 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본체적 의미에서 도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리로서 도와 리는 똑같이 형이상의 것이므로 器·氣

20) 『전경』 교운·1장 66절

21) 『대순지침』 p.18

등의 형이하의 사물과는 대응 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도를 천지의 개념에서 천의 형이상학적인 개념만 보는 협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천지 전체 즉, 형이상과 형이하 전부를 도로 보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장재는 ‘형이상을 도라 하고 형이하를 기라 한다’를 타파하여 ‘기의 변화로부터 도라는 이름이 있게 된다’고 하면서 ‘氣의 운동 변화 과정이 道다’고 설명하였다. 정호는 ‘한번 음하면 한번은 양하는 것이 도다’고 설명하였다. 왕정상은 유형과 무형의 氣 상태가 또한 道의 나타남과 돌아감(숨음)의 다른 상태라 하여 도와 기를 동체 범주로 보았고, 대진은 陰陽二氣가 도의 실체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본래 하나의 진리를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어쨌든 여러 도학가들의 주장이 一理가 있는 주장이므로 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도주께서 다음의 글을 통하여 설명하는 이와 기에 대한 설명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주장하는 도학가의 논리를 다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의 주체와 실체를 밝히고 있다.

구천상제께서 짜놓으신 삼계 대공사의 도수는 무극의 체(體)인바 그것을 풀어쓰는 것은 태극의 용(用)을 맡은 나의 소임이니 이 곧 무극시태극(無極是太極)의 원리이니라. 무극시태극이므로 무극과 태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무극 태극이 일체일용(一體一用)뿐이니라. 오직 무극은 정(定)이요, 태극은 동(動)이니 무극은 체(體)와 이(理)며 태극은 용(用)과 기(氣)니라.<sup>22)</sup>

## 7) 心으로서의 道

상제께서 “천지에 일월이 없으면 빈 껍질과 같고 일월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와 같다(天地無日月空殼 日月無知人虛影)<sup>23)</sup>”고 하셨고, 또 “일이 마땅히 왕성하게 되는 것은 천지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없다. 그러므로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게 되니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가 사람을 쓰는 때에 참

22) 太極道 編纂委員會, <眞經>, (太極道 出版部, 1989), p.506

23) 『전경』 예시21

여하지 않으면 어찌 인생이라고 하겠는가(事之當旺在於天地 必不在人 然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sup>24)</sup>”라고 하신 말씀에서 사람이 없는 천지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

도주께서는 “신은 사람이 없으면 후에 의탁할 바가 없으므로 사람에게 의지하고 인간은 신이 없으면 앞에서 이끌어주지 못하므로 신에 의지한다(神無人後無托而所依 人無神前無導而所依)<sup>25)</sup>”고 하신 말씀에서 신과 인간은 서로의 존재를 결정하며 서로 의지하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

도전께서는 “우주 대원(宇宙大元)의 진리가 도이며 도는 사람만이 깨달아 닦을 수 있으므로 도인으로서 본분에 알맞은 참된 말과 참된 행위를 준행하여야 한다”<sup>26)</sup>고 하신 말씀에서 도는 사람만이 닦을 수 있는 존재로 인간만이 ‘도가 곧 나이고, 내가 곧 도이다(道卽我 我卽道)’의 경지를 正覺할 수 있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인간과 도가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도와 인간에서 인간이 매우 중요한 존재로 부각된다면 당연히 인간의 주체가 되는 마음은 저절로 중시되리라고 생각한다. 상제께서 “천지의 중앙에 마음이 있다. 고로 동서남북은 마음에 의지하는 몸이다(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sup>27)</sup>”고 하셨고, “하늘이 쓰고 땅이 쓰고 인간이 쓰는 것을 통솔함은 마음에 있다(天用地用人用統在於心)와 내 마음의 추기문호도로는 천지보다 크다(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sup>28)</sup>”라고 하신 말씀은 ‘마음이 곧 도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심화가 육구연의 ‘자신의 마음밖에는 도가 없다’와 양간의 ‘사람의 마음이 곧 도다’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만 이는 상제의 마음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이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만약에 ‘마음이 곧 도이다’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선행되어야만 할 조건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도주께서 1928년 선포하신 포유문, “나로부터 구할 수 있는 양으로 헤아

24) 『전경』 교법 3장 47절

25) 『전경』 교운 2장 42절

26) 『대순지침』 p.23

27) 『전경』 교운 1장 66절

28) 『전경』 행록 3장 44절

릴 수 없는 지극한 보배가 있는데, 지극한 보배가 곧 심령이다. 심령을 통하면 가히 귀신과 수작할 수 있으며 만물과 질서를 같이 할 수 있다(吾之所求有無量至寶至寶卽吾之心靈也心靈通則鬼神可與酬酢萬物可與俱序)<sup>29)</sup>고 하신 말씀에서 심령을 구해야만 마음이 곧 도가 됨을 설명하고 있다. 또 “누구라도 도를 눈으로 보고 믿지는 못할 것이요. 다만 진법 도리(眞法道理)를 깨달아 믿는 것이니라. 소경이 꽃을 보지는 못하여도 향기(香氣)를 맡고 알 듯 도는 보는 것이 아니라 심공으로 깨닫는 것이므로 心不在道 道在心工(심불재도 도재심공)<sup>30)</sup>라고 하신 말씀에서 마음이 곧 도가 되려면 심공을 드러야 됨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심학가 왕수인의 ‘모름지기 자기 마음에서 도를 체득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의미이다.

#### 8) 人間的 當爲法則으로서의 道

상제께서 “부의 도리를 망각하였으니 도가 없고, 군의 도리를 망각하였으니 도가 없고, 스승의 도리를 망각하였으니 도가 없다. 세상에는 충도 없고, 효도 없고, 열도 없으니 천하가 모두 병들었다(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고 하였고 “공자는 노나라의 대사구란 벼슬을 하였고 맹자는 제나라와 양나라의 군주에게 성선을 설하였다. 서쪽 대성인이 말한 것을 서학이라 하고, 동쪽 대성인이 말한 것을 동학이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백성을 가르쳐서 백성을 바르게 하는데 있다(孔子魯之大司寇 孟子善說齊梁之君 西有大聖人曰西學 東有大聖人曰東學 都是教民化民)<sup>31)</sup>”고 하신 말씀에서 군사부의 도리와 충효열을 인간의 당위 법칙으로서의 도를 설명하고 있다. 또 상제로부터 “요·순(堯舜)의 도가 다시 나타나리라<sup>32)</sup>”는 말씀에서 요·순의 도는 최고의 이상으로 여기는 정치의 도이다. 여기서 도는 정치의 당위법칙으로서의 도를 설명하고 있다.

도주께서 무극대도의 취지서에 “하늘이 이치로써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은 도로써 하늘을 받드니 반드시 하늘의 가르침에 감동하여 도를 받드는 것을

29) 『전경』 교운 2장 42절

30) 太極道 編纂委員會, <眞經>, (太極道 出版部, 1989), p.473

31) 『전경』 행록 5장 38절

32) 『전경』 교운 1장 46절

지극히 생각하고 하늘에 대한 생각을 오로지 하여 도로써 일에 전념하라. 반드시 인의예지신을 행하고, 삼강오륜을 지킬 것이며 농사짓고 베 짜는 일에 부지런하고 경제를 절약하고 상·공에 응당히 힘써라. 직은 모두 하늘이 가르치는 것이니 반드시 힘쓸지어다.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물을 해치지 말며 흥하고 잡되고 싸우고 성내는 일을 하지 말고 가히 분수 밖의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이는 모두 하늘이 불미스러움을 싫어함이라(天以理授人 人以道受於天 須感天授 克念受道 專念對天 專事以道 必行仁義禮智信 必守三綱五倫 勤於耕織 節約經濟 應力商工 職皆天之所授也則 必其務也 毋傷人 不害物 無爲凶雜鬪怒之事 不可爲分外之妄事 皆是天厭之穢德也)”고 하였고, 또 “인의예지는 인간과 신의 도이다(仁義禮智人神之道)”<sup>33)</sup>라고 하신 말씀에서는 인의예지신과 삼강오륜을 인간의 당위법칙으로서의 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당위법칙으로서의 도를 도주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나의 도리는 어렵지 않으니 곧 무극과 태극의 진리니라 인간의 윤리도덕은 공자의 유교만한 가르침이 없으니 그것이 곧 인의(仁義) 삼강오륜으로 표시되며 석가(釋迦)의 교는 인간과 미물곤충까지라도 자비하는 것이 또한 취할만 하고 야소(耶蘇)가 설한 박애(博愛)도 또한 일리가 있느니라. 그러나 이는 윤리와 법의 부분적인 방법일 뿐 완전한 원리는 아니니 그 원리는 다만 태극진리니라. 태극은 음양이니 음양이 조화(調和)한 합덕으로 개인이 생활하고 사회가 유지되면 그것이 천리에 순응하고 인류에 계합(契合)됨이니라. 너와 내가 화(和)하고 부와 자가 화하고 형과 제가 화하고 부부간에 화하면 인류가 되고 정부와 국민이 화하고 자산가와 근로자가 화하고 지주와 작인이 화와 합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윤리도덕의 사회니라. 여기에 만일 원칙이 있으면 해원하여야만이 상생의 길이 트여 완전한 합덕이 되리라. 이 태극진리를 활연관통하는 것이 곧 우주전체의 원리와 인간의 생활윤리를 체득함이니라. 선이니 악이니 하는 인간의 언어 문자에 구애됨이 없이 음양합덕의 태극진리로 생활하는 자는 절로 인의 자비 박애를 천리(踐履)함이니 이에 법률이나 사회질서 또한 절로 형성될 것이다. 이것이 곧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원칙이니라.<sup>34)</sup>

33) 「전경」 교운 2장 42절

34) 太極道 編纂委員會, <眞經>, (太極道 出版部, 1989), p.504

## 9) 玄妙한 意味로서의 道

도주께서 “대저 도는 하늘이 명한 바이며 사람이 이를 행하는 것이다.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견고하며 바라봄에 앞에 있더니 홀연히 뒤에 있다(夫·道也者 天所命而 人以行之者也 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然在後者也)<sup>35)</sup>”고 하신 말씀에서 도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 태극통감의 취지서에 “어찌 태극신묘조화의 기동작용이 아닌 것이 있겠는가. 곧 그 기동작용의 묘가 지극히 심오하고 지극히 촘촘하며 지극히 깊고 지극히 미세하며 궁함이 없고 다함이 없어서 간격이 없고 험이 없으며 척도를 헤아릴 수 없으며 논함을 생각할 수도 없다(何莫非太極神妙造化之機動作用也 然而 其機動作用之妙 至奧至密 至玄至微 無窮無盡 無間無息 不可測度 不可思議)”라고 하신 말씀에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를 헤아릴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도전께서 “도(道)란 부단불식(不斷不息)하여 무형무적(無形無跡)하고 무성무취(無聲無臭)하지만 공명정대(公明正大)하여 무위무가(無爲無假)하며 무편무사(無偏無私)하여 두과지리(豆瓜之理)와 같다”<sup>36)</sup>고 하신 말씀에서 도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며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그 이치는 콩과 오이의 이치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에 대한 설명은 매우 형이상학적이고 현묘한 의미의 도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대순진리의 도는 더욱 현묘하여 도주께서는 “나의 도는 오늘날에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한 도이다(吾道者今不聞古不聞之道也)<sup>37)</sup>”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 3. 大巡眞理會의 道에서 바라본 先天의 道

상제께서 선천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도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35) 太極道 編纂委員會, <眞經>, (太極道 出版部, 1989), p.473

36) 「대순지침」 P.91

37) 「전경」 교운 2장 18절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도(道)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합(合)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sup>38)</sup>

지나간 임진란을 최풍헌(崔風憲)이 맡았으면 사흘에 불과하고, 진묵(震默)이 당하였으면 석달이 넘지 않고, 송구봉(宋龜峰)이 맡았으면 여덟달에 평란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불·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sup>39)</sup>

위의 글에서 상제께서 선천의 도를 모두 인정하고 계신 견해를 엿볼 수 있다. 그러면 모든 도법을 합하는 원리를 상제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제 동서양이 교류되어 여러가지 주의(主義)가 일고 허다한 단체가 생기나니 이것은 성숙된 가을에 오곡을 거둬 결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sup>40)</sup>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썰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sup>41)</sup>

도법을 합하는 원리로, ‘오곡을 거둬 결속’하고 ‘정수를 뽑아 통일’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受天地之虛無仙之胞胎(천지의 허무를 받아 선으로 포태하고)

受天地之寂滅佛之養生(천지의 적멸을 받아 불로 양생하고)

受天地之以詔儒之浴帶(천지의 이조를 받아 유로 욕대하고)

冠旺(관왕)<sup>42)</sup>

佛之形體仙之造化儒之凡節(불의 형체, 선의 조화, 유의 범절)<sup>43)</sup>

38) 「전경」 예시 13절

39) 「전경」 예시 73절

40) 「전경」 교법 3장 38절

41) 「전경」 예시 12절

42) 「전경」 교운 1장 66절

43) 「전경」 공사 3장 39절

여기서 선·불·유의 도를 관왕의 도로 결속시켰고, 또한 선의 정수를 뽑아 허무를 포태시키니 선의 조화를 보이고, 불의 정수를 뽑아 적멸을 양생시키니 불의 형체를 보이고, 유의 정수를 뽑아 이조를 육대시키니 유의 범절을 보이게 되므로, 이 모든 도는 관왕의 도로 통일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의 통일과 결속을 위하여 각 도의 주창자를 바꾸는 공사를 다음과 같이 하셨다.

상제께서 말씀하시길 “선도(仙道)와 불도(佛道)와 유도(儒道)와 서도(西道)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운(崔水雲)<sup>44)</sup>을 선도(仙道)의 종장(宗長)으로, 진묵(震默)<sup>45)</sup>을 불도(佛敎)의 종장(宗長)으로, 주회암(朱晦庵)<sup>46)</sup>을 유도(儒敎)의 종장(宗長)으로, 이마두(利瑪竇)<sup>47)</sup>를 서도(西道)의 종장(宗長)으로 각각 세우노라”고 하셨도다.<sup>48)</sup>

이 공사는 해원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도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를 각 도의 종장으로 세웠다는데 있다. 이와 같은 예를 불도의 종장인 진묵의 고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44) <대순회보> 제21호, p.14에, 최수운(1824-1864)은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경서(經書)를 연구해 보았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다. 최수운은 “이 세상은 요·순의 정치로도 다스리지 못할 것이며, 공·맹의 도덕으로도 또한 건지지 못하리라”고 단정했다. 다시 불서(佛書)를 깊이 연구했으나 역시 얻은 것이 없어 “유도 불도는 누천년의 운이 역시 다했던가”라고 안타까워했다. 또다시 도가의 신선술도 연구했지만 그도 역시 병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도리가 못된다고 단정했다. 이와 같이 최수운은 세상을 구할 도를 찾기 위하여 선·불·유와 서도를 두루 섭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 <대순회보> 제19호, p.14에, 진묵(1562-1633)은 농사꾼들과 혹은 유생들과 어울려 기행이적들을 보이고 때로는 학문을 논하며 유·불·선 어느 하나에 매이지 않았다. 그리고 진묵은 모친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한다. 이는 속세의 인연을 끊는 것을 전통으로 하는 당시 불가의 생리로 본다면 매우 독특한 태도이다.

46) <대순회보> 제22호, p.14에, 주회암(1130-1200)은 14세의 나이인데도 크게 분발하여 도를 구하려고 뜻을 세운바 도를 경서와 주석서에서 구하였다. 또 그 당시에 이름난 유식한 선비들과 고루 교재를 맺고 노·장자학(老莊子學)에 까지도 그 근본 취지를 규명하여 그 옳고 그름을 밝혔다. 이와 같이 주자는 여러 도를 섭렵하였다.

47) <대순회보> 제5호 p.15에, 이마두(마테오 릿치, 1552-1610)는 북경에서 유복(儒服)으로 바뀌어 입고 유학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그리고 한문으로 교우론(交友論)을 써서 동양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또한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예수 이전 서양 최고의 글과 같다 하여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이마두가 다른 도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48) 『전경』 교운 1장 65절

상제께서 전주 봉서산(全州鳳棲山) 밑에 계실 때 종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니라. 김봉곡(金鳳谷)이 시기심이 강한지라. 진묵(震默)은 하루 봉곡으로부터 성리대전(性理大典)을 빌려 가면서도 봉곡이 반드시 후회 하여 곧 사람을 시켜 찾아가리라 생각하고 걸으면서 한 권씩 읽고서는 길가에 버리니 사원동(寺院洞) 입구에서 모두 버리게 되니라. 봉곡은 과연 그 책을 빌려주고 진묵이 불법을 통달한 자이고 만일 유도(儒道)까지 통달하면 상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불법을 크게 행할 것을 시기 하여 그 책을 도로 찾아오라고 급히 사람을 보냈도다. 그 하인이 길가에 이따금 버려진 책 한권씩을 주워 가다가 사원동 입구에서 마지막 권을 주워 돌아가니라. 그후에 진묵이 봉곡을 찾아가니 봉곡이 빌린 책을 도로 달라고 하는지라. 그 말을 듣고 진묵이 그 굴이 쓸모가 없어 길가에 다 버렸다고 대꾸하니 봉곡이 노발 대발하는도다. 진묵은 내가 외울터이니 기록하라고 말하고 잇달아 한편을 모두 읽는도다. 그것이 한자도 틀리지 않으니 봉곡은 더욱 더 시기하였도다.<sup>49)</sup>

지금까지 선천의 도에 대한 설명에서 대순진리의 도와 선천의 도에 대한 상관 관계를 도주께서 “도덕(道德)이란 도의 꽃을 말함이니, 야소는 인자(人子)로서 인덕을 펴라는 인의 꽃이요. 불타(佛陀)는 각자(覺者)로서 불덕(佛德)을 펴라는 불의 꽃이니라. 그러나 오도(吾道)는 도의 열매를 맺는 진인(眞人) 진신(眞神) 진실(眞實) 진법(眞法)이니라”<sup>50)</sup>고 하신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선천의 도가 성숙의 과정을 말은 꽃의 도이고, 대순진리의 도는 완성의 관왕을 말은 열매의 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열매에는 성숙의 과정이 다 들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천의 도의 정수를 모아 상제께서 결속과 통일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大道의 대순진리의 도가 나온 것이다.

#### 4. 神道

대순진리에서 도를 설명하면서 도의 특징을 규정하기 위하여 쓰는 용어로 仙道·佛道·儒道·西道·大道·無極道·太極道·神道 등을 사용한다. 이 중에서도 대순진리에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神道’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

49) 『전경』 공사 3장 14절

50) 太極道 編纂委員會, <眞經>, (太極道 出版部, 1989), p.521

다.

神道란 용어는 『전경』 공사 1장 3절, 상제께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神道の 定義를 찾아볼 수 있다. 대개 지금까지의 도는 인간이 수행해야될 도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에서 그것은 신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신도에 의해서 인사가 저절로 이룩된다면 여기서의 신도는 신이 수행해야될 도를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이 신이 수행해야 될 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다음과 같다.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 또 너희가 아무리 죽고자 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오. 내가 놓아주어야 죽느니라.<sup>51)</sup>

‘某事在天’의 설명은 신도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즉, 신들이 직접 천하사를 계획하여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 “너희가 아무리 죽고자 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오. 내가 놓아주어야 죽느니라”와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sup>52)</sup>에서 말씀은 신도의 주재자가 상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도는 오직 상제에 의해서 새롭게 지어 만드신 道임을 설명하시면서 이 道는 人爲的으로 부술 수가 없는 道가 됨을 다음의 글이 말하고 있다.

“목전의 일만을 쉽게 알고 심량 없이 하다가 말래지사(未來之事)가 같지 않으면 그 아니 내 한(恨)인가”를 읽으시니 뇌성이 대발하며 천지가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화약내가 코를 찌르는도다. 모든 사람이

51) 『전경』 교법 3장 35절

52) 『전경』 공사 1장 2절

혼몽하여 쓰러지니라.<sup>53)</sup>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九년간 행하여 온 개벽공사를 천지에 확증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참관하고 확증을 마음에 굳게 새겨두라. 천 리는 말이 없으니 뇌성과 지진으로 표명하리라.” 상제께서 모든 종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별안간 천둥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sup>54)</sup>

지금까지 상제에 의해 만들어진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며 이것이 곧 무위이화(無爲而化)’라<sup>55)</sup>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신도의 무위이화 법칙을 구체적으로 다음의 예문에서 볼 수 있다.

유월 어느날 밤에 도적이 백 남신(白南信)의 친묘를 파고 두골을 훔쳐갔도다. 김 병욱이 사람을 보내어 상제께 이 소식을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촛불을 밝히시고 밤을 새우기를 초상난 집과 같이 사흘을 지내시고 난 후 남신에게 가서 두골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한적한 곳에 거처하되 다른 사람의 왕래를 끊고 기다리면 처서절에 그 도적이 두골을 가져오리라”고 전하게 하시니라. 남신은 백운정(白雲亭)에 거처하면서 명을 좇으니라. 七월에 접어들면서 친산의 아랫 동리의 어른이 마을 사람들과 상의한 끝에 친산밑에 사는 사람으로서 굴충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마을 사람들이 두루 찾고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묘주의 상을 후하게 주기로 결의하였느니라. 마을 사람들이 각방으로 찾는 도중에 두골을 가지고 마을 어른을 찾는 동리 한 사람이 나타난지라. 그 어른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백운정에 있는 묘주를 찾으니라. 그날이 곧 처서절이었도다. 그런데 두골을 찾았다는 자가 도적의 누명도 벗고 상도 탈 욕심으로 동리의 어른을 찾았도다.

병욱이 용두리(龍頭里) 주막에 계시는 상제를 찾아 뵈옵고 그 사실을 아뢰니 상제께서 “그 도적을 어떻게 하려느냐”고 물으시므로 병욱이 “이미 경무청에 보냈나이다”고 여쭙니 가라사대 “사람을 잘 타일러서 돌려보낼 일이어늘 어찌 그렇게 하였느뇨. 속히 푸른 의복 한 벌을 지어오라” 병욱이 명하심을 남신에게 전하니 남신은 푸른 의복 한 벌을 상제께 올렸도다. 상제께서 그 옷을 불사르시고 “이것으로써 그 사람을 징역에나 처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니라. 훗날에 종도들이 처서날에 찾게 된 연유를 여쭙어보았더니 “모든 사사로운 일이라도 천지공사의 도수에

53) 「전경」 공사 3장 21절

54) 「전경」 공사 3장 38절

55) 「전경」 예시 73절

붙여두면 도수에 따라서 공사가 다 풀리니라”고 이르셨도다.<sup>56)</sup>

## V. 道通에 대한 理解

### 1. 道通의 主體

지금까지 대순진리회의 道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通을 설명할 수 있기에 道에 대한 다방면의 해석을 보았다. 여기서 道通의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道通은 누가 하는가’의 질문이 대두된다. 이 질문의 답으로 보통 선천 道通의 주체를 인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선·불·유도 모두가 인간의 道通에 힘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道通은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지만 자연 환경의 대변화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것은 선천의 도가 인간의 육체보다는 정신을 중시하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천·지·인三界와 신과 인간 그리고 정신과 육체 모두를 생각한 道通이 아니라면 선천의 道通은 원만한 大道通를 의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순진리의 道通은 이 모든 것이 두루 다 통하는 道通을 의미한다. 즉, 대순진리의 道通은 삼계의 완전한 道通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지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이 道通眞境을 이루기 위한 선행 조건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순진리의 道通은 천지인 삼계 모두의 道通이요, 신과 인간의 道通이요, 정신과 육체의 道通이다. 이것이 대순진리의 목적인 地上神仙實現과 地上天國建設을 의미하는 것이다.

道通의 주체인 삼계에서 천지는 비인격 존재이기 때문에 천지를 대변하는 것은 천지 신명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인간이 통해야 할 도와 천지신명이 통해야 할 도가 같은 의미의 천지대도가 되어야 하므로 道通의 의미는 삼계의 누구에게나 같은 것이 될 것이다.

56) 「전경」 행록 4장 28절, 29절

## 2. 道通이란

도통에 대한 해석을 『국어 사전』은 ‘사물의 깊은 도리에 통함’이라 하여 理에 대한 언급만 나타나고, 다른 사전류에서는 그 뜻을 표현하기가 너무 심오하여서 그런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도통은 도를 통한다’는 자의적인 해석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대순진리의 道는 앞 단락에서 해석되었고 通은 『漢韓大字典』에서 ‘깨닿음·두루 미침·환히 앎’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해석에 의하면 대순진리의 도통은 ‘대순진리의 도를 깨닿음’ 혹은 ‘대순진리의 도를 환히 앎’ 등으로 해석되어진다.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은 도통을 설명하기에는 좀 미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제께서 도통에 대하여 “공자(孔子)는 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재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sup>57)</sup>고 말씀하셨다. 이 설명에서 도통은 차등이 있음을 말하며 상등의 도통은 ‘만사를 임의로 행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또 도주께서 “도통은 기사(奇事) 이적(異蹟)을 능행(能行)하고 삼계를 자재 임운(自在任運)하는 신통력(神通力)도 있되 그런 일은 개인의 영성(靈性)에 의(依)한 체험이며 오직 태극(太極)의 진리를 각지(覺知) 체득(體得)하는 것이 진도통(眞道通)이니라. 이러한 요체(要諦)로 활연관통(豁然貫通)함이 오만년 후천선경 우주 전체의 대도통이니라”<sup>58)</sup>고 설명하셨고 또한 “도(道)를 통하면 무불통지(無不通知)하고 무소불능(無所不能)”<sup>59)</sup>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도전께서는 『大巡眞理會要覽』 趣旨에서 도통은 “삼계를 투명(透明)하고 삼라만상의 곡진이해(曲盡理解)에 무소불능(無所不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7) 『전경』 교운 1장 34절

58) 太極道 編纂委員會, <眞經>, (太極道 出版部, 1989), p.592

59) 太極道 編纂委員會, <眞經>, (太極道 出版部, 1989), p.694

이러한 관점에서 대순진리의 도통은 자연과 인간의 당위 법칙을 설명하는 선·불·유의 이치를 완전히 알뿐 만 아니라 행할 수 있고, 또한 상제께서 짜놓으신 神道와 더불어 같이 함을 의미하고, 그리고 종지 음양합덕·신인 조화·해원상생 이치를 완전히 알고 더불어 함을 의미하는 도통을 하면 ‘全知全能’됨을 말하고 있다. 즉, 도통은 ‘시공의 어떤 길이던지 알고 막힘이 없이 갈 수 있다’, ‘만물 만상의 순환·반복·법칙·이치를 알고 주재할 수 있다’, ‘우주와 인간의 본질과 본원 즉, 무극을 완전히 알게 된다’, ‘無의 본질을 알게되고 창조와 조화를 임의로 행하게 된다’, ‘마음이 도 즉, 천지자연과 일체가 된다’, ‘인간의 당위법칙을 완전히 체득하여 인사에 막힘이 없게 행하게 된다’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 3. 道通에 이르는 過程

道通에 대한 설명은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누구나 그런 경지에 갈 수 있도록 쉬운 과정만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에서 밝히는 도통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앞 설명에서 도통의 주체는 천지인 삼계라고 하였다. 여기서 만상의 법칙은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천지가 도통하는 과정이나 인간이 도통하는 과정의 법은 같다고 본다. 그래서 인간에 한정하여 도통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라 선술을 얻고자 십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의 성의로 하늘에 올림을 받은 머슴을. 그는 선술을 배우고자 스승을 찾았으되 그 스승은 선술을 가르치기 전에 너의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니라. 그 머슴이 십년 동안의 진심갈력(盡心竭力)을 다한 농사 끝에야 스승은 머슴을 연못가에 데리고 가서 “물위에 뻗은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물위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선술에 통하리라”고 일러주었도다. 머슴은 믿고 나뭇가지에 올라 뛰어내리니 뜻밖에도 오색 구름이 모이고 선악이 울리면서 찬란한 보연이 머슴을 태우고 천상으로 올라가니라.<sup>60)</sup>

60) 「전경」 예시 83절



위의 글은 상제께서 도통에 이르는 과정을 소개하는 간단한 예가 된다. 여기서 스승이 선술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머슴의 誓願·誠意·下心·믿음 등을 시험한 후 仙術을 통하게 하였다. 여기서 도를 통하게 하는 공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인간에게 도통에 필요한 필수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그 답이 있는 것이다. 이 마음에 대한 것을 상제께서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 주리니”<sup>61)</sup>, “도통 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sup>62)</sup>고 하신 말씀에서 찾아 볼 수 있고, 도주께서 “나로부터 구할 수 있는 양으로 헤아릴 수 없는 지극한 보배가 있는데, 지극한 보배가 곧 심령이다. 심령을 통하면 가히 귀신과 수작할 수 있으며 만물과 질서를 같이 할 수 있다(吾之所求有無量至寶至寶卽吾之心靈也心靈通則鬼神可與酬酢萬物可與俱序)<sup>63)</sup>”고 하신 말씀에서도 찾아 볼 수 있고, 그리고 도전께서 “마음이 무욕청정(無慾淸淨)이 되었을 때 道通眞境에 이르니라”<sup>64)</sup>고 하신 말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음의 닦음에서 도통의 열쇠가 있음을 세분이 다 같이 말씀하셨고, 이 도통에 이르는 구체적인 과정을 도전께서 『대순진리회요람』 취지에 다음과 같이 잘 밝히고 있다.

오직 우리 대순진리회는 성·경·신 삼법언(三法言)으로 수도의 요체를 삼고 안심·안신 이율령(二律令)으로 수행의 훈전(訓典)으로 삼아 삼강오륜을 근본으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국법을 준수하여 사회도덕을 준행(遵行)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질로 환원토록 수심연성(修心煉性)하고 세기연질(洗氣煉質)하여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道通眞境의 대순진리를 면이수지(勉而修之)하고 성지우성(誠之又誠)하여 도즉아(道卽我) 아즉도(我卽道)의 경지(境地)를 정각(正覺)하고 일단 활연(豁然) 관통(貫通)하면 삼계를 투명하고 삼라만상의 곡진이해에 무소불능하나니 이것이 영통이며 도통인 것이다.

또, 대순진리회의 道場 尋牛圖와 증곡도장 2층 壁畵에서도 상징적으로 의

61) 「전경」 교운 1장 34절

62) 「전경」 교운 1장 41절

63) 「전경」 교운 2장 42절

64) 「대순지침」 p.39

미로써 도통에 이르는 과정을 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심우도와 벽화에 대한 해석은 논자의 自意적인 해석이다.

<尋牛圖>

① 深深有悟: 求道者라면 누구나 가지는 단계, 즉 삶의 궁극적인 답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深察하는 단계이다. 즉,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과 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등의 질문에 스스로 곱씹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② 奉得神教: 심심유오 단계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깊은 명상에 빠져 보기도 하고, 아니면 성현의 말씀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도가를 찾아서 그 답을 구하고자 하다가 三生の 인연에 의해 구천상제의 도를 받들어 얻는 단계이다.

③ 勉而修之: 구천상제와 도주께서 짜놓으신 眞法과 陳法에 의하여 힘써 닦아 나가는 단계이다.

④ 誠之又誠: 수도를 함에 있어서 정성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항상 정성의 부족함을 구천상제께 心告하면서 정성에 정성을 더하는 단계이다.

⑤ 道通眞境: 정성이 一定 한계를 넘어 서면 심신이 상쾌해지면서 마음의 눈이 저절로 열려서 천·지·인 삼계와 과거·현재·미래를 通透하는 단계이다. 즉, 진경의 세계를 이치를 완전히 알고, 보고, 펼칠수 있는 단계이다.

⑥ 道之通明: 음양 즉 정신과 육체, 정신계와 현상계 등 천·지·인 삼계 모두가 도통을 하여 인간은 地上神仙이 되고, 천지는 仙境世上으로 化한 단계이다.

<壁畫>

① 奉祝: 도전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향을 피운 후 法坐를 하고 奉祝呪의 주문을 奉頌하면서 靈通에 이르도록 구천상제에게 간청하는 단계이다.

② 煩惱: 太乙呪 呪文을 연속하여 읽어 나가면 첫 번째 나타나는 단계이

다. 이 단계의 목적은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잡념을 제거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잡념을 제거될 때 번뇌가 일어난다. 즉 종이나 칠판에 새로운 글을 쓰고자 할 때 종이나 칠판에 있는 기존의 글씨나 낙서를 지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평소 수도에서 도에 대한 誠心이 약하여 망상이나 헛된 일에 빠져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마음에 담겨 있는 잡념이 많고, 잡념이 많으면 지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당연히 번뇌 과정이 오래 간다.

③ 身苦: 태을주 주문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목적은 사람이 몸에 가지고 있는 탁하고 나쁜 기운을 제거하여 傷한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육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진행될 때 몸에 고통이 온다. 즉 평소 생활에서 남에게 거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暴言을 함부로 하면 척을 짓게 되고, 척을 지으면 몸에 척이 응하게 되니 당연히 몸이 상하게 된다. 이렇게 상한 몸을 고치는데는 고통이 따른다. 따라서 평소 수도에서 모든 일에 공경심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가 부족하면 신고 단계가 오래 간다.

④ 亂入: 태을주 주문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세 번째 나타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인간의 그릇을 측정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유혹, 공포 등이 온다. 즉 평소 생활에서 정신이 나약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약하거나, 죽음이 두려워서 正義를 저버리거나, 女色에 눈이 어두워서 公正性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작아져서 小人이 된다. 따라서 평소 수도에서 구천상제에 대한 믿음이 부실하면 정의와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소인이 되면 신명이 만들어 낸 공포에 기절을 하거나 신명이 만들어 낸 유혹에 넘어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하여 난입의 과정을 통과하기가 어렵다.

⑤ 聚精: 태을주를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네번째 나타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문 봉송이 청산유수와 같으며 마음과 몸은 편안하여 無我的 경지로 들어서면서 몸에 무한한 기운이 모이는 단계이다.

⑥ 開眼: 주문 봉송의 다섯 번째 나타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영통의 단계이며 천·지·인 삼계와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사실과 이치에 통하여 無所不知와 無所不能의 단계로 접어든다.

## VI. 眞境에 대한 理解

道通은 지금까지 설명된바 ‘眞境’을 설명하면 『국어사전』에서는 ‘본바탕을 가장 잘 나타낸 참다운 지경’과 ‘실제 그대로의 경계’로 풀이하였고, 『한한대사전』은 ‘신선등이 사는 아주 깨끗한 땅’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풀이에서 대순진리의 진경을 설명하기에는 『국어사전』은 부족하고 『한한대사전』은 구체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대순진리가 의미하는 진경의 자의적인 해석을 먼저 하면 ‘眞’은 가짜의 상대 개념에서 비롯된 진짜로 해석하기보다 극복하고 고치고 개선해야만 하는 불완전한 것에 상대적 의미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완전 즉, 理想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境’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경의 의미에서 道通眞境은 ‘천지신명과 인간이 도통을 하여 도통의 全知全能 능력을 가지고 이상세상 즉, 완전한 세상을 이룬다’로 해석되어 진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진경은 후천으로 설명되며 그 후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진경의 자연적인 여건에서 보면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sup>65)</sup>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본 진경의 정치는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갈래로 되리라”<sup>66)</sup>고 하였고, 군주의 덕성은 “요·순(堯舜)의 도가 다시 나타나리라”<sup>67)</sup>에서 찾아 볼 수 있었고, 그 다스림은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라”<sup>68)</sup>에서 살펴볼

65) 「전경」 예시 81절

66) 「전경」 교법 3장 26절

67) 「전경」 교운 1장 46절

68) 「전경」 예시 81절

수 있고, 그러한 정치의 결과는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 지리라”<sup>69)</sup>고 하였다.

이러한 진경의 정치에서 진경 생활은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리라<sup>70)</sup>, 또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것이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 도인의 집집마다 등대 한 개씩 세워지리니 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 밝아지리라. 전등은 그 표본에 지나지 않도다. 문고리나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금 당혜를 신으리라<sup>71)</sup>”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진경 사람의 지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리라”<sup>72)</sup>고 설명하고 있고, 후천 남녀의 직위는 “그 닭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sup>73)</sup>”하였다. 그리고 진경의 결혼과 재혼은 다음의 글에서 잘 나타난다.

상제께서 어느날 후천에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려고 종도들에게 오주를 수련케 하셨도다. 종도들이 수련을 끝내고 각각 자리를 정하니 상제께서 종이쪽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후천 음양도수를 보려하노라. 각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점을 찍어 표시하라”고 이르시니 종도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점을 찍어 올리니라. 응종은 두 점, 경수는 세 점, 내성은 여덟 점, 경석은 열두 점, 공신은 한점을 찍었는데 “아홉점이 없으니 자고로 일남 구녀란 말은 알 수 없도다”고 말씀하시고 내성에게 “팔선녀란 말이 있어서 여덟 점을 쳤느냐”고 묻고 응종과 경수에게 “노인들이 두 아내를 원하나 어찌 감당하리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후천에서는 새로운 기력이 나지 아니하리까”고 되물으니 “그럴 듯 하도다”고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경석에게 “너는 무슨 아내를 열 둘씩이나 원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열두 제국에 하나씩 아내를 두어야 만족하겠나이다”고 대답하니 이 말을 듣고 상제께서 다시 “그럴 듯 하도다”고 말씀을 건너시고 공신을 돌아보면서 “경석은 열 둘씩이나 원하는 데 너는 어찌 하나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건곤(乾坤)이 있을 따름이오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

69) 「전경」 예시 80절

70) 「전경」 예시 81절

71) 「전경」 공사 1장 31절

72) 「전경」 예시 81절

73) 「전경」 교법 1장 68절

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고 하시고 공사를 잘 보았으니 “손님 대접을 잘 하라”고 분부하셨도다. 공신이 말씀대로 봉행하였느니라. 상제께서 이 음양도수를 끝내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문왕(文王)의 도수와 이윤(伊尹)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말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고 일러주셨도다<sup>74)</sup>.

종도들의 음양도수를 끝내신 상제께서 이번에는 후천 五만년 첫 공사를 행하시려고 어느날 박 공우에게 “깊이 생각하여 중대한 것을 들어 말하라” 하시니라. 공우가 지식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아뢰기를 “선천에는 청춘 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케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나이다”고 여쭙니 상제께서 “네가 아니면 이 공사를 처결하지 못할 것이므로 너에게 맡겼더니 잘 처결하였노라”고 이르시고 “이 결정의 공사가 오만년을 가리라”고 말씀하셨도다.<sup>75)</sup>

## VII. 끝머리

국가와 민족 그리고 종교에 따라 그 표현은 다르지만 인간이 꿈꾸는 이상 세계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선도에서는 ‘선경세계’, 불도에서는 ‘용화 세계’, 유도에서는 ‘대동세계’, 서도에서는 ‘천국’, 서양에서는 ‘유토피아’를 꿈꾸며 그 이상을 찾아 사람들은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그 이상에 도달하는 법을 몰랐기에 상제께서 강세하셨어 우리 인간에게 그 세상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 대순진리의 종지는 지상천국건설과 지상신선실현의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법이다. 따라서 진경을 건설하려면 三界의 大道通이 필수적이 되고, 대도통을 하려면 종지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된다. 따라서 宗旨의 최종 歸着地는 道通眞境이며 이는 神과 人間 모두가 바라는 世界이다.

74) 「전경」 공사 2장 16절

75) 「전경」 공사 2장 17절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指針』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眞理會要覽』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太極道 編纂委員會, 『眞經』 太極道 出版部, 1989
- 구보 노리따다 지음, 최준식 옮김, 『道敎史』 분도출판사, 1990  
都珖淳 編, 『神仙思想과 道敎』 범우사, 1994  
裴一友, 『修道에서 得道까지』, 도서출판, 1994  
李能和 輯述, 李鍾殷 譯, 『朝鮮道敎史』 보성문화사, 1996  
張立文 著, 權珊 譯, 『道』 동문선, 1995